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10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아십니까



1990년 5/6월호, 통권 제12호

표지설명

인간 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하나뿐인 우리 지구의 환경은 점점 황폐화 되어 그 생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지구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각국의 환경보호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구환경보호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인간의 영원한 고향일 수밖에 없는 지구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표지사진은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 사가 상처투성이의 지구 모습을 Rendering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글을 수록하며

1990년 5/6월호 (통권 제12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점점 퇴색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선배님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사주-



글 · 유병은
청원방송박물관 (기고당사)

독립운동사에도 찬연히 빛나는 업적으로 남아있는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연락운동' 사건은 우리 방송에서도 두드러진 값진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료의 빈곤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칫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버릴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유병은 원로의 노력으로 '단파방송 연락운동'은 우리 방송사의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다. 선배 방송인들의 높은 기개와 업적을 기리고 받드는 뜻에서 '단파방송 연락운동'에 관한 유병은 원로의 글을 연재한다.

개황

KBS가 펴낸 한국방송50년사를 살펴봐도 단파사건에 관해서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후 다시 발간한 방송60년사에서도 구체적인 전모를 밝힐 수 없었던 만큼 일제하의 방송에 관한 사료는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관헌들은 한국인 사상범이나 시국사범을 잔악무도하게 다루었던 까닭에,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본이 패전하고 쫓겨갈 때 이를 소각하거나 파기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터이다.

필자는 한국방송사를 전공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사건에 관계되는 사료발굴과 연구에 몰두해오던 중, 근간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하고 있는 독립운동 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발견하게 됨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것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어서, 단파방송 밀청사건으로 형무소에서 징역을 복역 후 아직 생존해 있는 몇 명의 인사와 동사건에 관련되어 경찰부 유치장에서 곤욕을 치렀던 인사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규명키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또 일본에 건너가 당시 사건의 관련자를 만나 보다 정확한 사태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인 조선방송협회 간부가 "단파사건은 한국인에게 너무 가혹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책자 등을 입수할 수 있어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경로로 만시지탄을 절감하면서 후학을 위해 "단파방송 연락운동"의 진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붓을 들게 되었다.

일제 말엽의 보도방송은 사실보도를 외면한 허위에 가까운 보도방송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실정이었다. 귀가 있어도 자유로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며, 병어리가 냉가슴을 앓듯 바보노릇을 해야만 했었다. 정책적으로 극도의 언론탄압을 펴나간 까닭이었다.

일본 방송 50년 사를 보면 단파 수신기는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주사변 발발 후부터는 무선통신기기 취체 규정이 체신령 제51호로 제정 공포되어 단파방송의 청취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황은 처음에는 승전하는 듯하다가 점차 패전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방송은 대본영의 발표라는 보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승전하고 있다는 즉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에 가까운 보도방송을 서슴지 않고 내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있던 외국인 선교사와 공무수행상 단파 수신기를 조정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인 방송국 기술직원들은, 미국에 망명하여 구미위원회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와 중국에서 조선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조선동포에게 보내오는 '고국 동포에게 고향'이라는 단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의 눈을 피하여 단파방송을 '밀청' 해본 사람들은 우선 방송내용이 정반대되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일본은 머지않아 패전하게 된다"고 하며, "일제에 협력치 말라"고 호소하고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으며, 머지않아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조선은 독립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 선교사는 절친한 한국인 목사 장로 및 일부 교인들에게 은밀히 귀뜸을 해주고 한국인 방송국 기술직원들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절대로 누설되지 않을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연락운동으로 확대되어 정치인 민족주의 지도자, 언론인, 독립운동가, 학교 교사, 의사, 변호사, 상인, 농민 및 광산인 등 광범위한 자생조직적 연락망으로 번져 나가게 된 것이다.

최초에는 경성방송국 기술과에 근무하던 미국시민권을 소지한 이이덕과 단파사건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성기석 등이 각자가 은밀히 밀청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확대되고 여러 개의 자생조직이 생겨나게 되어, 아나운서, 편성원,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기술직원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동문학가이며 독립운동가인 송남헌이 편성원 양제현과 접선되어 송진근 아나운서 등과 손잡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홍익범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국내 민족주의 지도자 송진우, 백관수, 김병로, 이인, 허헌, 국태일 및 함상훈 등 많은 애국지사를 망라하는 연락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서 기밀로 삼고 있는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있던 일본경찰의 미행 끝에, 사상범과 시국사범의 혐의로 3백50명에 가까운 많은 애국지사를 구속하였다. 결국 유언비어 유포죄, 외국방송 청취죄, 보안법, 치안유지법, 육·해군 형법 등의 위반죄를 뒤집어 씌워 70여 명을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6명의 옥사자를 내기까지 한 큰 사건이었다. 영장 없이 무조건 체포하여 심한 구타와 각종 고문을 자행한 고등계 사찰형사들의 만행은 말로 다 형언키 어려운 실로 잔인하고도 무도한 일제의 발악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방송국 단파

사건에 관련자를 일망타진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경찰 최고의 훈장을 받은 바 있는, 일본인 고등계 사이가 시찌로 경부는 한국인의 사상범만을 전담하던 악명 높은 악질 경찰간부였으나, 8·15 해방 후 원남동 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한국인 의열단원에게 피살되었다. **동서를 막론하여 방송 기술인이 주축이 되어 야기된 방송인의 수난사건은 그 유례를 세계 방송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시대적 배경

일제하에서는 극심한 보도관제와 언론탄압으로 급변해가는 국내외 제반정세를 전혀 알 길이 없어 매우 막막하였다. 그래서 단파방송 밀청에서 입수되는 값진 정보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갈구하듯'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나 방송국 기술직원으로부터 간혹 흘러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해외로 망명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우던 독립투사들과 국내에서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많은 애국지사들에게는 정보의 교환과 상호연락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망명객은 국내사정을 알 길이 없어 은밀히 왕래하는 독립투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했으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은 일부 선교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와 방송국 기술직원들의 단파방송 밀청에서 입수되는(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였다.) 정보에 의존하던 실정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전긍긍 삶을 살아야 되었으며, 특하면 예비검속으로 잡아 가두고, 유언비어 유포죄에 걸려들어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기가 일쑤인 심정이었다. 세 명 이상만 모여 수군거려도 불법집회로 단속을 받고 운수가 불갈하면 예비검속이니 일제단속이니 하는 등의 억울한 인신구속을 당해야만 되었다.

특히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되어버린 후부터는 국내 정객들은 정보수집의 길이 막혀 매우 답답한 실정이었다.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한 국내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혈벗고 굶주리는 괴로움보다 더 뼈저리게 괴로워했던 심각한 문제였다.

한편 일제말엽에는 한국인 고유의 성명까지도 일본식 4자 이름으로 강제로 바꿔버리는 '창씨개명'을 강요당하는 등 강제 징병, 강제 징용, 강제 학병, 강제 포로 감시원, 강제 근로보국제도 등이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젊은 부녀자를 '정신대'라는 미명하에 일본군인의 위안부로 끌어가게 지독한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군량미의 강제공출을 비롯하여 포탄을 생산한다고 철물 강제공출로 놋그릇은 물론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까지도 강제로 빼앗아가는 악정은 오히려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층 더 항일과 배일사상을 불러일으키는 반사작용으로 번져나가는 역효과를 초래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해외로부터 보내오는 단파방송은 격렬한 어조로 “일본의 패전이 가까웠으니 조선은 독립하게 된다”고 외치고 있었으니 참으로 감격적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일본식민지 정책은 신사참배니 궁성요배니 하는 등외에도 일본말을 강제로 상용시키고 한국말을 말살해 버리려는 판국이었으며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일간신문을 모두 강제로 폐간시켜 버리는 등 갑자기 암흑세계가 되어버리는 듯한 먹구름이 뒤덮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인지라 해외단파방송의 밀칭은 우리민족에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단파 방송을 밀칭한 방송기술인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단파수신기의 역할

당시의 우리나라 시보방송은 손으로 태엽을 감아주는 표준시계를 아나운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차임을 때려 시간을 알려 주었으며 이 시보가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이었다.

21일 만에 한 번씩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였으니 시간의 오차는 대단히 컸으며 아나운서가 시계를 내려다보는 각도와 각자의 시력 및 차임을 때리는 속도에도 많은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의 귀에 도달하는 시보는 한마디로 엉터리 시보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로 네거리에 있었던 소방탑 옥상에 장치한 사이렌에서는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시보를 듣고 사이렌 스위치를 넣어 큰 소리를 내서 서울시민에게 정오의 표준시간을 알려주는 오프를 울린 것이다. 이 사이렌으로 알려주는 시보는 서울시민의 시계를 맞추는데 절대적인 표준시간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자동시보장치 24시간에 9/1000초 이내의 오차라는 허용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는 방송의 석금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방송일화의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는 시절의 격세지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확한 시보방송을 내보내야만 되었던 까닭은 단파수신기가 방송국에 없었던 까닭이다. 즉 암흑시대의 방송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 촌노가 서울에서 알려주는 표준시간이 시골까지 내려오려면 한 시간은 걸릴 터이니 서울의 12시는 우리 시계로는 1시에 맞추어야 된다고 고집했다는 일화를 들은 기억이 난다.**

당시는 녹음기라는 말조차도 들어 보지 못한 시절이라 100% 생방송을 꾸려 나가느라고 현업원의 고생은 컸으며, 때로는 술에 취한 연사의 고장으로 방송이 못 나가는 소동도 벌어졌으며, 방송국에는 기자가 없어 방송

할 거리가 매우 궁핍했던 때였다.

단파수신기의 필요성은 절실하였으나 일본에서도 아직 생산을 못하는 때였으며 미국의 RCA제 단파수신기가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시절이라 매우 고가여서 재정형편이 어려웠던 방송초창기에는 방송국에도 단파수신기가 없었다.

부정확했던 시보방송을 단파수신기로 직접 수신하여 보다 정확한 시보방송으로 개선하는 한편, 일본에서 단파방송으로 보내오는 뉴스 등을 수신하여 직접 중계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 단파수신기는 방송국의 필수 장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선 단파수신기 한 대를 어렵게 입수하여 KBS의 전신인 경성방송국 지취실(현 주조정실)에 설치하게 되고 전 현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단파수신기 조정법을 습득케 하여 방송현업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35년 최초로 지방방송국이 생겨 부산 동래에 방송국 전용 수신소를 만들면서 지방에 최초로 단파수신기가 등장했다. 1941년 12월 8일 대동아 전쟁 발발 후에는 외국인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할 때 그들로부터 몰수한 단파수신기를 전국 각 지방방송국에 골고루 두 대씩 배치하여 일본의 뉴스방송을 직접수신하는 방송운영을 시도케 되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올 때 그들은 본국의 뉴스를 단파로 청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단파수신기를 휴대하는 것이 통례였다. 즉 선교사들은 단파수신기로 외국방송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퍼뜨려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를 받고 추방되고 단파수신기는 몰수당했던 것이다.

중앙방송국에서는 2510KHZ의 중단파수신 시설을 연희방송소에 비치하고 매일 아침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친 동보연락 방송을 신설케 된 것도 모두 지방 방송국에 단파수신기가 비치된 것을 토대로 하여 생겨난 새로운 제도였다.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일반적으로 각 지방방송국에 지시하고 알려주는 공개된 사령 무선전화의 형식이었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였으나 매일 매일의 업무연락, 인사발령사항, 예산 및 결재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지침, 변동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단파수신기는 한층 더 귀중한 존재로 등장케 되고 방송국 기술직원은 단파수신기에 익숙해지고 단파수신기와 더불어 지내게 되었다. 단파방송 청취금지령 하에서도 방송국 기술직원만은 공무를 수행하는 체하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김구 주석이 중경에서 보내오는 방송을 직접 밀칭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나 구미위원회 이승만 박사의 고국동포에게 고하는 특별방송은 처음 들어보는 한국인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깜짝 놀랄 화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로소 애국독립투사들이 해외로 망명하

여 맹렬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밀청을 계속하는 동안에 점차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고 시국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갔다. 그즈음 단파방송에서는 일본의 패전을 예고하고 우리의 독립을 예견케 해주는 내용의 방송을 보내오며 일본정부와 전쟁수행에 협력하지 말고 거부하며 방해하라고 격렬한 어조로 부르짖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파사건'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독립운동사에 기록된 단파사건

국가보훈처가 펴낸 독립운동사 제4권 임시정부를 보면, “조선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선전부의 대적 선전부서와 협력하여 중경 방송국의 단파방송시설을 통해 한국어 단파방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경 방송국에서 한국어 단파방송을 전담했던 사람들은 엄항섭, 안병무, 조시원, 김재호, 신기언, 김의한 등이었으며 또 애국부인회 측에서도 최선화 등의 여러 간부들이 매주 1회씩 조선임시정부의 활동사항 등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들의 절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 단파방송의 아나운서들은 전문적인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방송인들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격렬하고 애국적인 어조와 내용은 단파방송을 밀청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애국심이 용솨움치도록 만드는데 족하였다. 현업기술원들이 일본인의 눈치를 보며 밀청하는 것이었으니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주미 외교부의 대표인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소리 단파방송을 통하여 “나는 이승만이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2천 5백만의 자유의 소리요. 또 생명의 소식이라고 갈파하고 이순신, 임경업 장군 등의 뜻을 받들어 왜적의 장비를 날날이 때려 부수시오, 철도길을 일일이 끊어버리시오, 적병이 지날 길은 곳곳에서 끊어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왜적을 없이 해아만 될 것입니다.”라고 방송기술원들이 들은 바 있는 단파방송 내용이 독립운동사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 중경단파방송에서도 조선임시정부의 활동사항 및 광복군의 구체적인 전파 등을 자세히 알려 주었으므로 단파방송을 밀청하는 외국인 선교사나 방송국 기술원들은 남이 모르는 놀랄만한 중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터였다. 아무리 입을 굳게 다물어야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이러한 소식을 극비리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은밀히 연락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독립운동사는 '1943년 봄에는 이러한 해외 단파방송을 취청한 사실이 일본 경찰에게 탐지되어 성기석, 염준모, 송진근, 박용신(방송국 기술원과 아나운서) 등의 방송관계자와 송남현(독립운동가), 홍익범(동아일보사 정치부 기자) 및 허헌(변호사) 등 150여 명에 달

하는 인사들이 검속되어 악형을 당하게 되고 홍익범, 문석준 등 6명의 옥사자를 냈으며 20여 명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2년 이상의 옥고를 치르게 되고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1972년에 노산 이은상이 편찬위원장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펴낸 책이다. 당시로서는 사료의 발굴이 미흡하여 이 정도의 기사를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 것도 일대 역작이었다고 하겠으며 이제 방송국의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국내 민족주의 지도자에게 미친 영향

서울신문사가 발행한 주간 선데이 서울 1982년 3월 7일 자 제15권 제9호 통권 제690호 '실록 제1공화국'이라는 제호 하에 김교식이 쓴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19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하는 최초의 우익 민족진영의 정당으로 조선민족당이 생겨났다. 이때 발기인들은 이인의 사랑방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김병로, 조병옥, 백관수, 박찬희 및 라용균 등이 회합을 하였다. 그러나 이인이나 김병로를 대표로 내세워 여운형과 대결하기에는 너무 약체여서 송진우를 끌어들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이인, 김병로 및 조병옥 등은 송진우에게 간청을 했으나 송진우는 “**지금은 정당을 말할 때가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진주할 연합군과 중경에 있는 조선임시정부를 거족적으로 환영할 일이 시급합니다**”라고 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면 송진우는 어쩌서 그런 고집만 부리고 들어앉아 있었을까?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숨어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매일 승전고를 울렸다. 잠자고 있는 나라에 뛰어들어 기습을 가하였으니 초기에는 승산이 있는 듯도 했다. 그러나 1943년으로 접어들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는데도 일본의 방송은 여전히 승전고를 두드리고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홍익범이 송진우를 찾아갔다. “그동안 전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잡혀들어 갔습니다”라고 홍익범이 송진우에게 귀뜸을 했다. 홍익범의 이러한 말에 송진우는 “그럼 큰일이로군 달리 전세를 알아볼 길이 없겠나”라고 반문하였다. 홍익범은 “알고 보니 그동안 외국인 선교사들은 단파수신기로 그들의 모국 방송을 수신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단파수신기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대하여 송진우는 “단파수신기라면 경성방송국에도 없을까?”하고 홍익범에게 반문하였다. 이 말에 홍익범은 “글쎄요! 방송국에는 어쩌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홍익범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인 송남헌이 경성 방송국의 아동물과 가정물의 작가로 방송국에 무상출입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즉시 송남헌을 만나 이 문제를 숙의했다. 그리고 경성 방송국에 단파수신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송남헌은 “방송국에는 단파수신기가 있으며 조선사람 기술원이 여러 명 있기는 하지만 누가 단파방송을 수신해 주겠습니까?”라고 걱정스러운 대화를 홍익범과 주고받았다.

당시 방송국 편성과에 근무하는 편성원이며 아동문학가 동호인이었던 양제현에게 협조를 구해 보기로 하고 송남헌이 책임지고 성사시켜보기로 했다. 송남헌은 곧바로 양제현을 찾아가서 “한국인 기술원으로부터 단파수신기 한대를 빼내 오든가 아니면 단파방송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양제현의 대답은 “단파수신기는 기술과 조정실에 설치돼 있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다. 그러나 송남헌은 졸라대며 양제현에게 간청을 했다. 양제현이 기술원 등과 상의해 보았으나 역시 난색을 표하는 터였다. 왜냐하면 선교사 추방으로 몰수된 단파수신기를 방송국에 비치한 후부터는 일본 관헌의 예리한 감시의 눈초리가 단파수신기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 기술원들은 단파수신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미국이나 중경의 단파방송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국 기술원끼리 주고받는 대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나는 어젯밤 미국에서 보내오는 단파방송을 들어요. 우리말로 방송하더군. 짹 짹 놀랐어” 이 말에 “그럼 오늘 밤에는 나도 들어 봐야겠어” 이것은 기술원이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귓속말이었다. 당시에는 중경에서 조선임시정부가 맹활약을 하고 있어 독립운동의 혁혁한 전과를 방송하고 또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는 조선사람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일본이 전쟁이 패전케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오고 있던 때였다.

방송국 내부의 사정에 정통한 양제현 PD는 한국인 기술원이 매일 단파방송을 밀청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세를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송남헌에게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송남헌은 양제현으로 하여금 방송국 안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하고 이는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여 양제현의 협조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송남헌은 즉시 홍익범에게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은 홍익범은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희망에 찬 기분으로 송진우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드디어 경성방송국에 줄이 닿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래서 송진우는 원서동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제반 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 송진우는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다.

이인의 회고록 “애산여적”(애산은 이인의 아호)이라는 책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인(변호사)는 송진우, 김병로, 허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4인 회담의 한 사람이다) ‘하루는 송진우가 청진동 내 변호사 사무실(4자 회담 장소)에 들어서 나를 보고 잠시 나오라고 하기에 나가보았더니 이제 일본이 머지않아 패전할거요! 그리 알라고 하더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송진우는 연합군의 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모양이야 그 후에도 송진우는 정확한 정세를 전해 주었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송진우가 집에 앉아서도 방송국 기술원들이 단파방송을 밀청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경성방송국 단파사건의 윤곽이 약술되어 있다. 송진우, 김병로, 이인 및 허헌 등은 청진동 합동변호사 사무실에서 빈번히 4자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은 독립운동가인 송남헌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홍익범의 재판기록을 보면 각종 정보를 백관수, 국태일, 경기현, 함상훈 및 허헌 등 많은 민족 지도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를 보고했으며, 그들이 알아듣고 완전히 이해토록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홍익범, 그는 경신학교 시절부터 외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남달리 애국심이 투철하여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귀국하여 민족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가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로 폐간시킨 후부터는 불철주야로 독립운동을 강행한 사람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아 복역 중 나라의 독립을 못 본 채 옥사하고 말았다.

또 송진우의 말 중에 ‘몽양(여운형) 자중하시오! 우리에게는 중경에 조선 임시정부가 있으며 미국에는 구미위원회가 있소!’ 라고 이야기해준바 있으며, 누가 찾아와 정당 참여를 권해도 송진우가 그와 같이 신중론을 되풀이한 것은 그가 방송국 기술원들이 단파방송을 밀청한 내용을 연락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송진우는 미군이 진주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포츠담, 알타회담 등의 내용도 연락받고 있었다. 당시에는 단파방송을 청취하지 않고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의 입수는 불가능했던 때이므로 송진우가 그 후에도 “아직은 정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요”라고 하며 요지부동으로 신중론을 내세워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성방송국 기술원들이 단파방송을 밀청한 내용을 연락하는 운동이야말로 이 나라 독립운동을 뒤에 숨어서 도와준 값진 거사였다고 하겠다. 